Cantata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BWV 80

- □□

정보

Johann Sebastian Bach: Cantata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BWV 80

작곡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작품명: Cantata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BWV 80
장르: 독창 ·합창 ·기악을 위한 코랄 칸타타
전승: 1715년 Weimar의 BWV 80a에서 출발해 1720년대 후반 –1730년대 Leipzig에서 개작
예배 용도: 종교개혁기념일 (10월 31일)
초판 /전승: 1821년 사후 초판, 1870년 Bach-Gesellschaft-Ausgabe, 1987년 Neue Bach-
Ausgab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in_feste_Burg_ist_unser_Gott,_BWV_80

Johann Sebastian Bach의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BWV 80은 Martin Luther의 찬송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성 ”을 중심에 둔 종교개혁기념일 칸타타다. 1715년 Weimar에서 시작된 음악을 Leipzig의 예배를 위해 여러 차례 손질한 결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독창과 4성 합창, 오보에류, 현악, 통주저음이 약 30분 동안 여덟 악장을 펼친다. 코랄의 요새와 전투 이미지는 첫 악장의 촘촘한 푸가, 베이스 아리아와
소프라노 코랄의 결합, 유니즌 합창, 마지막 4성 코랄로 서로 다른 얼굴을 얻는다.

개요
BWV 80은 “A Mighty Fortress Is Our God”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중심은 찬송을 크게 울리는 데만 있지 않다. 바흐는 Luther의 선율을 여러 악장에 나누어 배치하고, 오래된 Weimar 칸타타의 독창 악장을 새로운 종교개혁절 맥락 안에 끼워 넣었다. 그래서 거대한 합창과 내밀한 아리아가 한 곡 안에서 번갈아 나타난다.

이 칸타타를 처음 듣는다면 첫 악장의 긴 푸가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 코랄이 네 가지 방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따라가면 좋다. 1악장에서는 각 구절이 여러 성부로 차례로 들어오고, 2악장에서는 소프라노가 코랄을 부르는 동안 베이스가 아리아를 노래한다. 5악장은 모든 성부가 한목소리로 코랄을 외치고, 8악장은 회중 찬송에 가까운 4성 화음으로 작품을 닫는다.

Luther의 찬송과 종교개혁기념일

Luther가 1529년에 쓴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는 시편 46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 ” 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 . 요새 , 무기 , 악의 군대 , 깃발 같은 말이 이어지며 신앙을 전투의 언어로 표현한다 . Bach 시대 작센에서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의 예배가 열리는 날이었고 , 이 찬송은 회중에게 이미 익숙한 노래였다 .

Netherlands Bach Society는 17세기 전쟁의 기억이 아직 가까웠던 시대에 이 은유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 오보에는 군대와 연결된 악기였고 , 여러 오보에가 같은 선율을 연주하면 행진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 BWV 80에서 그런 음향은 실제 전투를 묘사하기보다 , 텍스트가 말하는 믿음의 결속과 공동체의 힘을 음악으로 옮긴다 .

Weimar에서 Leipzig로

현행 BWV 80은 1715년 Weimar에서 사순절 제 3주일을 위해 쓴 BWV 80a를 바탕으로 한다 . Weimar 원형의 텍스트는 Salomo Franck가 썼고 , 베이스 아리아 “Alles, was von Gott geboren”에서 Luther 찬송의 한 구절이 이미 인용되었다 . 이후 Leipzig에서 종교개혁기념일 칸타타로 용도가 바뀌면서 찬송의 네 절이 작품 전체를 묶는 중심이 되었다 .

Leipzig 판본은 한 번에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 기존 음악을 예배 상황에 맞게 고쳐 간 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초기 Leipzig 버전에서는 간결한 코랄 악장이 첫머리에 놓였고 , 1730년대의 최종판에서는 긴 코랄 모테트가 도입부를 차지했다 . Bach Digital은 현행 BWV 80.3을 두 번째 Leipzig 버전으로 기록하며 , 정확한 작곡일은 특정하지 않는다 . 이 과정은 같은 음악이 다른 예배일과 편성 속에서 어떻게 새 의미를 얻는지를 보여 준다 .

편성

현행 Leipzig 버전의 기본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독창 ▪합창 : 소프라노 , 알토 , 테너 , 베이스 독창과 4성 합창
- 목관 : 오보에 3대 , 오보에 다모레 2대 , 오보에 다 카치아 또는 타이유
- 현악 ▪통주저음 : 바이올린 I·II, 비올라 , 첼로 , 비올로네 , 오르간을 포함한 통주저음

초기 버전과 후대 판본에서는 악기의 수와 역할이 달라진다 . Bach Digital과 Bachipedia는 Wilhelm Friedemann Bach가 1760년대 Halle에서 1악장과 5악장을 가져와 라틴어 텍스트와 트럼펫 세 대 , 팀파니를 더한 별도 보강판을 기록한다 . 오늘날 공연에서 트럼펫과 팀파니가 들릴 수 있지만 , 그것을 아버지의 모든 Leipzig 악보에 원래부터 있던 편성으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 .

여덟 악장

1. 합창 ,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첫 악장은 전주 없이 코랄 선율의 한 구절을 푸가 주제로 던진다 . 소프라노가 긴 음가로 선율을 붙들고 다른 성부가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가 각 구절을 차례로 받아들인다 . Bach Choir of Bethlehem은 한 절 안에도 여러 번의 성부 진입이 있고 , 구절마다 리듬과 장식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

세 오보에는 때때로 같은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 , 현악과 통주저음은 그 주위를 힘차게 움직인다 . 성악의 푸가와 악기의 지속적인 운동이 겹치면서 , “견고한 성 ”이라는 말이 정지된 건축물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리는 구조처럼 들린다 . 각 구절이 끝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성부가 들어오므로 , 긴 악장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 .

대위법은 음악적 장식이 아니라 코랄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 한 성부가 노래한 구절이 다른 성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 앞선 목소리가 아직 움직이는 동안 새 목소리가 들어온다 .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 마지막까지 주제가 계속 변형되며 , 이 긴 합창은 첫 악장부터 작품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운다 .

2. 베이스 아리아와 소프라노 코랄 , “Alles, was von Gott geboren / Mit unser Macht ist nichts getan”

두 번째 악장은 베이스가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해 선택되었다 ”고 노래하는 아리아와 , 소프라노가 Luther의 코랄 두 번째 절을 부르는 부분을 결합한다 . 베이스의 선율은 힘차고 빠르게 움직이며 , 소프라노의 코랄은 그 위에서 더 긴 호흡으로 울린다 . 개인의 결의와 공동체의 찬송이 동시에 존재하는 악장이다 .

가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 그리스도가 대신 싸운다고 말한다 . 바흐는 이 내용을 한 성부의 선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베이스 아리아의 추진력과 소프라노 코랄의 안정된 선율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며 , 신앙의 승리가 개인적 감정과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인상을 만든다 .

3. 베이스 레치타티보 , “Erwäge doch, Kind Gottes”

베이스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악에 맞서는 싸움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한다 . 앞 악장의 빠른 움직임이 가라앉고 , 말의 억양이 음악을 이끈다 . “싸움 ”이라는 표현은 외부의 적을 향한 명령이라기보다 , 죄와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태도로 좁혀진다.

이 짧은 레치타티보는 다음 소프라노 아리아를 위한 문을 연다. 거대한 합창의 공적 공간에서 한 사람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 가며, 코랄의 전투 은유가 개인의 기도와 연결된다.

4. 소프라노 아리아, “Komm in mein

Herzenshaus”

소프라노는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라고 예수를 초대한다. 오보에류와 현악이 노래를 부드럽게 받치며 , 첫 악장의 단단한 푸가와 대조되는 친밀한 공간을 만든다. 전쟁과 요새를 말하던 칸타타가 이제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노래로 바뀐다.

아리아의 선율에는 간절함과 망설임이 함께 있다. 중간부에서 음악의 움직임이 강해졌다가 처음의 호흡으로 돌아오며, 신앙이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정돈하는 일임을 들려준다. Bachipedia 는 이 악장을 Weimar 시기의 내밀한 아리아가 지닌 불안과 사랑의 균형으로 설명한다.

5. 합창 코랄, “Und wenn die Welt voll

Teufel wär”

다섯 번째 악장은 “세상이 악마로 가득하더라도 ”라는 Luther 코랄의 절을 모든 성부가 함께 노래한다. 네 성부의 선율이 거의 유니즌처럼 움직이며, 앞선 푸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모은다. 각자가 자기 선율을 앞세우는 대신, 같은 리듬과 방향을 공유한다.

세 오보에와 현악은 이 합창을 군악대처럼 흉내 내기보다, 일치된 발걸음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마련한다. Netherlands Bach Society가 말한 행진의 이미지는 이곳에서 특히 분명하지만 , 음악의 본질은 악기의
군사성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성부들의 결속에 있다. 신앙의 요새는 두꺼운 벽보다 한목소리로 지탱된다.

6. 테너 레치타티보 , “So stehe dann bei Christi blutgefarbten Fahne”
테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라고 권한다. 가사는 다시 전투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 레치타티보의 말투는 과장된 행진보다 설교에 가깝다. 방금 전 합창의 공동체적 힘에서 벗어나, 한 사람이 스스로 어디에 설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짧은 악장이지만 , 다음 알토 ·테너 이중창의 내용과 연결되는 중요한 방향 전환을 맡는다. 공동체의 노래가 개인의 결심으로 좁혀진 뒤, 두 성부가 서로의 문장을 주고받으며 다시 넓어진다.

7. 알토 ·테너 이중창, “Wie selig sind doch

die”

알토와 테너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지 노래한다. 두 성부는 같은 선율을 그대로
겹치지 않고 서로 모방하며, 때로는 가까이 붙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보에 다 카치아 또는 타이유와 현악이 그 대화를 감싸며, 전투적 텍스트가 내면적인 성찰로 바뀐다.

가사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믿음을 비교한다. 바흐는 이 차이를 거친 음악적 충돌로 만들지 않고, 두 목소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대화로 풀어낸다. 중간부에서는 두 번째 악장의 활기찬 움직임이 떠오르지만 , 마지막에는 다시 차분한 선율이 돌아온다. 믿음의 승리는 외침의 크기보다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는 데 있다.

8. 합창 코랄, “Das Wort sie sollen lassen

stahn”

마지막 악장은 Luther 찬송의 마지막 절을 4성 코랄로 노래한다. 첫 악장의 길고 복잡한 푸가와 달리, 선율과 화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말씀은 그대로 서게 하라 ”는 문장이 회중의 목소리로 정리되며, 칸타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끝난다.

가사의 마지막에는 몸, 재산, 자녀와 배우자를 모두 잃더라도 말씀은 이긴다는 강한 확신이 나온다. 음악은 이 문장을 과장된 승리의 팡파르로 만들지 않는다. 성부들이 같은 박과 화음을 공유하면서 , 잃을 수 있는 것과
남는 것을 차분하게 구분한다. 처음의 요새가 마지막에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한 곡의 찬송으로 변한다.

네 번 나타나는 코랄
Luther의 선율은 1·2·5·8악장에 직접 나타난다. 첫 악장에서는 푸가의 주제가 되고, 두 번째 악장에서는
소프라노가 코랄을 부르며 베이스 아리아와 겹친다. 다섯 번째 악장에서는 네 성부가 하나의 힘으로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전통적인 4성 화음으로 정착한다.

같은 선율이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푸가에서는 선율의 첫 구절이 여러 음역으로 번지고, 아리아에서는 다른 선율과 동시에 흐르며, 유니즌 코랄에서는 리듬의 결속을 만든다. 마지막 코랄은
앞선 모든 변화를 지나온 뒤의 단순함이므로 , 짧아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역사적 전승과 19세기 수용
BWV 80은 바흐 사후 1821년에 처음 출판된 칸타타로 알려져 있다. 1870년 Breitkopf & Härtel의 Bach-Gesellschaft-Ausgabe에서는 Wilhelm Friedemann의 트럼펫 ·팀파니 보강이 널리 퍼졌고, 이 화려한 판본이 작품의 표준처럼 받아들여진 시기도 있었다. Neue Bach-Ausgabe는 1987년에 Leipzig 버전의 악보를 새로

편집하고, 이듬해 비평 보고서를 붙였다.

19세기에는 거대한 합창과 “독일의 요새 ”라는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BWV 80이 영웅적인 국가 상징처럼 소비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그와 함께 Weimar 원형에서 비롯된 소프라노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친밀함도 들을 수 있다. 작품은 웅장함과 사적인 기도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버전과 악장 안에서 함께 자라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주요 레코딩
Nikolaus Harnoncourt / Concentus Musicus Wien: 초기 역사주의 연주를 대표하는 녹음
가운데 하나로, 코랄의 리듬과 오보에류의 거친 발음을 앞에 세운다. 후대의 큰 합창 음향과
비교하면 독창 악장과 통주저음의 실내악적 결이 가까이 들린다.
Karl Richter / Münchener Bach-Chor와 Münchener Bach-Orchester: 두터운 합창과 관현악으로 종교개혁절의 공적 규모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트럼펫과 팀파니가 더해진 전승을 접할
때, 19세기 이후 확장된 BWV 80의 음향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John E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와 English Baroque Soloists: 빠른 발음과
선명한 대위법으로 첫 악장의 성부 진입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거대한 합창과 소프라노 ·베이스의
대화가 한 흐름 안에서 이어진다.
Shunske Sato / Netherlands Bach Society: PHIL Haarlem 공연 영상은 여덟 악장의
순서를 한 번에 보여 준다. 세 오보에의 행진 음향, 5악장의 유니즌, 마지막 4성 코랄의 대비를
화면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ach Digital, BWV 80.3: Leipzig 버전, 텍스트 ·편성 ·판본 ·Wilhelm Friedemann 보강 기록.

Bachipedia,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Weimar 원형과 Leipzig 개작, 악장별 텍스트 ·음향
해설.
Bach Choir of Bethlehem, Cantata BWV 80: 종교개혁기념일 , 8개 악장, 코랄이 나타나는 네
악장과 악보 설명.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80: Shunske Sato 공연 영상, 군사 은유와 오보에 편성 해설.

Bach-Cantatas.com, BWV 80: BWV 80a·80b·80 전승, 텍스트 역할, 판본 ·음반 보조 자료.

Which Bach Cantata?, BWV 80: 종교개혁기념일과 Leipzig 시기 작품 정보, 관련 연구 사이트 안내.